生活空間으로서의 住宅에 대한 小考

池　淳 / 건축연구소間 · 三

날마다 또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 내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주택 문제에 관한 신문기사가 집이 없는 모든이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곤한다.

그 해결책을 앞질러서 문제는 방향을 달리하며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주택난 해결책이라는 명목 아래 근본적인 연구는 뒤로 미루고 수적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여러 형태의 수많은 공동 및 단독주택들이 과연 우리의 주거생활의 요구에 맞는 주택으로서 디자인되어 건설되고 있는지?

생활인과 건축가는 함께 가족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주택" 이라는 공동문제로서 짓기보다는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 생활을 하는 주택

"주택"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피를 같이 했거나 어떤 관계 지어진 사랑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인간들이 함께 둘러싸인 테두리 안에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처(Shelter)이다 라는 기본은 변함이 없고, 이 거처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며 여러 형태로 변천되어 왔다.

인간 삶(생활)의 기본은 입고(衣) 먹고(食) 산다(住)는 3 대 요소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주생활(생활행위와 거처의 형성)은 의생활 · 식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옷을 갈아입고 세탁하며 수납정리 하는 일,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즐기며 식품을 저장하는 일도 소비생활의 체계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주택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며 주거방법, 주택의 형태 · 규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의 · 식 · 생활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주거양식에 맞는 의복 및 정리방법과 음식형태 및 식사처리 방법은 생활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누구나 의 · 식 · 생활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주거공간의 욕구도 변화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사회변화와 문화 · 문명의 발전 속도에 따라 급속하게 영향받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현대인은 육아 · 교육 · 오락 · 종교 및 사회교제 등 모든 인간생활이 가족단위로 하나의 주택 속에서 창조되고 영위하는 기본 바탕으로서의 주택을 더욱 중요시하며 가족의 생활행위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 생리적 행동은 물론 생활감정을 포함한심리적 · 정신적인 행동까지도 만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 행위들은 개인적인 생활행동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와의 관련을 갖고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회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택개선의 노력은 건축가의 끊임없는 연구과제임이 분명하다.

■ 현대여성의 주거생활 변화

현대여성의 고등교육의 추세는 여성의 능력활용과 사회참여의 필연적인 문제로서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생활개선과 더불어 생활환경 개선, 즉 시설설비의 과학화와 공간의 능률화가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여성상을 부덕으로 삼았던 주부의 인내심은 주부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타고난 운명으로서 단념하는 인내 · 희생 · 정절 등으로 규정하는 정신적 관념으로 묶어 여성에게 가정 내에 생활행동 범위가 제한되는 삶을 강요함으로써 주거의 형태 및 시설 설비의 불편함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이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

현대의 여성은 여기에서 벗어나 가정을 운영하며 발전시켜야 하는 주부로서와 사회진출 · 지역봉사 · 경제활동 등의 이중 직업인인 것이다.

즉, 일정한 직장을 출퇴근하는 직

업인이거나 아니거나 여러 측면에서의 사회참여와 주부자신 및 남편·자녀들의 발전과 목적하는 성취를 위해 잡다하고 수많은 가사를 수행하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강습회와 여러 종류의 모임 등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사회 조직형성의 추세가 주택관리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는 공동주택으로의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적 사회형성으로 외래 문화·문명의 신속한 도입과 여성의 사회진출은 남녀 균등하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와 가족계획의 제도화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교육을 받은 여성의 대부분이 자기성취와 경제적인 이유로서 결혼후 직업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 여성적 직종인 교사·간호원 이외에도 특수 전문직종에 많은 직업부인의 직장확보 현황과 각종 강좌로서 여가선용 프로그램 안내 등을 신문방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가정의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협동적 관계를 갖고 각기 주부대신 역할이 가능한, 또는 주부에게 협조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체계로서 운영할 수 있는 생활공간 구성은 온 가족이 즐겁게 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용품의 정리방법과 편리한 시설의 구성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에서의 뿌리 깊은 생활의식은 아직도 여성에 대한 관념이 무의식 속에 주부의 희생적 봉사를 당연시하여 가사는 여성의 주어진 당연한 임무로서 인식되어 가족과 주부 상호간에 일어나는 생활내용에 대한 불만에 차이가 생기며 주부도 주부 자신만이 기억하고 작업할 수 있는 가사노동 공간의 처리 및 물품정리로서 가족공동의 가사공간으로서의 환경조성 및 시설개선이 무시될 때 가정생활과 사회와의 불일치성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목적하는 환경개선에 앞서 가족의 협동적 생활방법을 구체화하고 습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생활 속의 외래문화

가족의 생활을 창조하는 주거 공간은 외래 문화문명의 도입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 20세기 초 개화기를 맞이하며 서구문명이 들어 오면서 주거양식에 점차적인 변천을 갖어 오게 되었고 해방 후 서구 문화문명의 도입이 급증되면서 부터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주거양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즉, 핵가족 위주의 기능적인 평면구성과 침식의 분리, 독립성의 존중, 좌식과 의자식의 혼용 등으로 국적없는 새로운 주택이 급작스럽게 양산되면서 집모양의 유행도 가지가지 나돌았으며 새로운 주택가에 새로운 주택형은 어려운 주택문제를 탄생시키고 있다.

더우기 도시의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집합주거 형식인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출현은 이제 우리의 주거양식화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주거양식의 변화는 과열된 교육문제를 낳게된 사회문제로서 지역적 조건과 단위주거의 규모에 따라 선택기준이 되고 있을 뿐 가족의 생활과 주거의 운영관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제외된 요인을 어떻게 제거시킬 수 있겠는가? 건축가는 현재의 주택군이 미래에는 과오로 남지 않도록 미래에 대한 주거공간을 예측할 수 있는 안목과 도시형성에 대해 검토하며 설계에 임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욕구는 너무도 다양하다.

편리하고 간편한 서구식 생활양식의 생활공간이면서 전통적인 생활 습관이 혼용된 한식 내실과 식습관의 양측면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주택을 짓고자 하는 욕구는 한국 건축가에게 국적없는 주택형을 창조케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서구식 거실과 식당, 전통적 안방과 손님접대, 입식의 침실, 어린이의 요구를 도외시한 교육적 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개성없는 어린이 방, 세계각국의 음식을 다 조리할 수 있는 부엌, 된장찌게를 먹어야 되는 개방식 거실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습관이 서구식 생활공간에 혼용될 때 주택 설계는 더 없이 어려운 과제로 복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주와 많은 협의와 검토로서 최대의 만족한 결과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처음 집을 지을 때 만족했던 집도 생활을 하다보면 조금은 불편한 점도 생기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여기저기 눈에 띄게 되며, 다음 집을 옮길 때는 이런 집을 짓자 또는 선택하자 하는 발전하는 소망이 생기기 마련이다.

건축가로서 이런 솔직한 불평과 바램을 바르게 받아들였을 때 체험 속에 눈을 띠우는 발전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며 고마운 조언이 된다.

집은 짓고 살아보는 가운데 연구가 되며 살아 있는 자료라는 것을 건축주에게서 많이 듣게 된다.

외래문화의 토착화란 말은 쉽지만 일반화하여 주택이라는 형체에서 확립한다는 것은 문화적인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와 깊은 관심으로 계속 노력하는 건축활동의 자세로서 차츰 정리되리라 생각된다.

인간의 생활습관은 각기 편안함과 편리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좋지 않는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생활공간 디자인도 그 공간의 사용자와 협의하고 파악하여 이해한 후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행동하여 습관교정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는 디자인이어야 후회없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택이 되는 사례가 많다.

■ 생활목적을 갖는 주택

현대주택의 제1조건은 목적에 맞는 주거공간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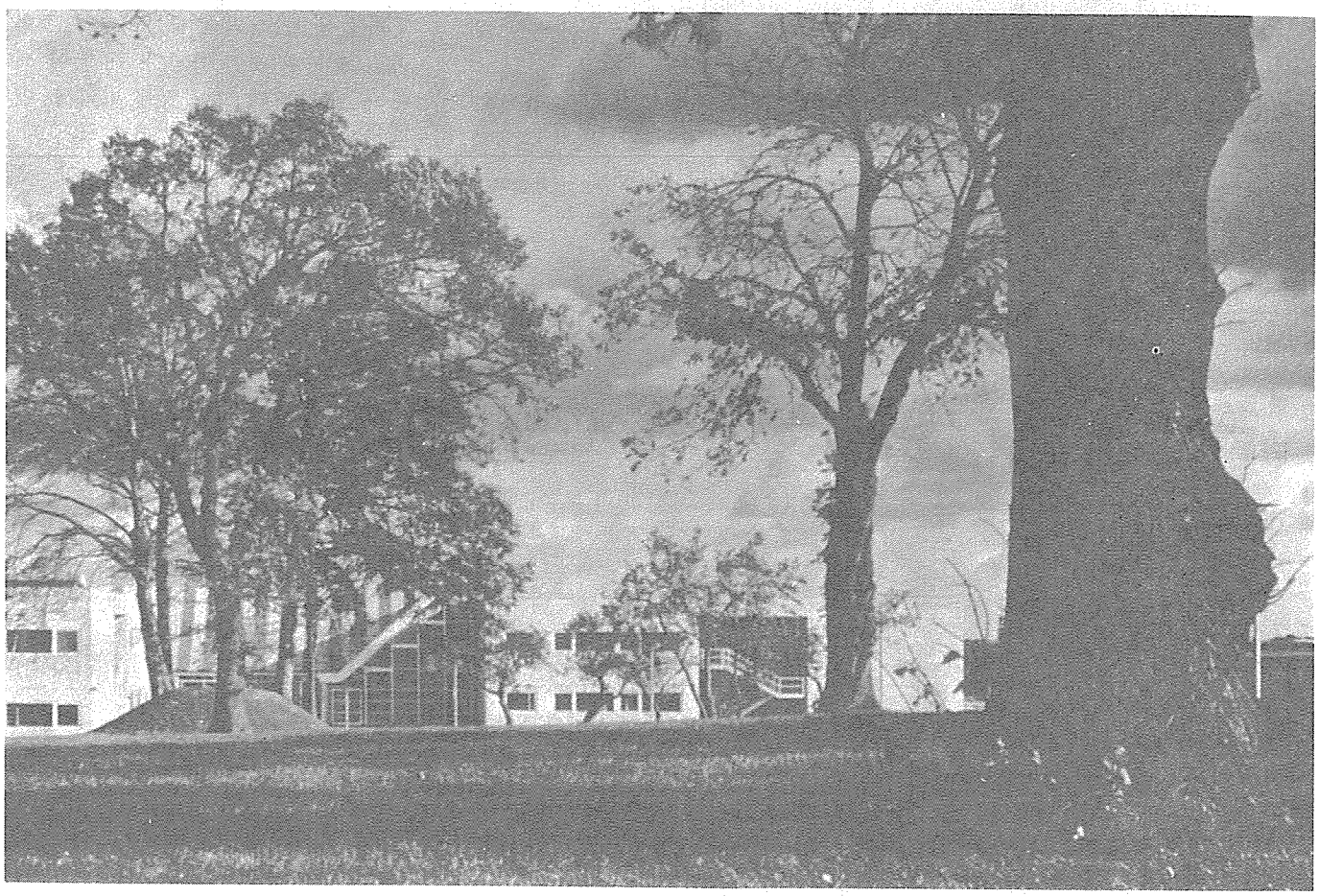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그 목적에 따라서 복장을 변경하고 소지품을 맞게 찾아서 준비한 후 출발한다는 것과 같이 집을 지을 경우에도 생활 목적을 설정한다. 즉, 생활방법·생활양식, 인생의 가치관 및 목적에 따라서 주택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인과 주부만의 집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사는 집으로서 부모와 자식간에 생활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공통된 바탕 속에 자라왔고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를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통점을 찾아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건축가는 중계자이기도 하다.

좋은 집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생활의 목적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개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 발전함으로 사회와의 관계, 직위·경제적 조건, 자녀의 성장으로 생활방법·취미·기호 등의 변화는 주거공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일으키게 한다.

즉, 인생의 목적, 생활의 목적으로 주거의 목적이 뚜렷해지며 그 수단으로서의 주택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생활활동이 충분히 이루는 기능을 갖임이 중요한 일이다.

현대주부들의 사회참여와 가정 이외의 활동범위 확대는 가사 이외의 많은 시간의 필요성으로 가사 노동의 단순화의 목적을 쉽게 만족시켜 주는 입식생활의 편리한 시설설비와 안전한 관리체계의 아파트의 선호도의 증가가 교육열의 과열로 좋은 학군의 지역적 조건이 사회의 커다란 논란거리를 일으킨 복부인 탄생이란 엄청난 사회문제가 생겼으나 점차 고층화 및 획일성에 의한 자연환경에 대한 향수는 베란다에 가꾸는 꽃장식의 아이디어가 다양해지고 콘크리트의 획일적인 외벽을 무늬 놓아 장식해 주는 아름다운 광경이 선진국처럼 전체의 지역적 미화에 공헌하고 있어 한결 모든 사람의 마음도 아름다와지는 것 같고 생활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최근에 와서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장점을 함께 갖는 외국의 "타운하우스" 형태의 연립주택의 형태는 차츰 주부들의 선호도가 높아짐을 볼 수 있고 이에 유수한 건설 업체는 이런 주택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다.

모든 주택은 국민의 재산으로서, 생활공간으로서 도시환경 조성으로서, 책임있는 건설을 위해 미래의 주택으로서 생활을 올바르고 맞게 영위 할 수 있는 우리의 집으로서 연구하여 생활 내면의 가치성을 높이는 주택이 되어야겠다.